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가족 내 세대 갈등에 대한 자녀들의 대응

: 갈등과 모순, 그리고 대처의 유형*

최창식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 강사**

세대 간 대립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로 점차 그 범위와 깊이를 더해가면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전통적 역할 변화와 미디어 등 소통 채널의 다변화 등으로 인한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갈등의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을 자녀 세대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가족 내부에 어떠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와의 대립 상황에서 성인 자녀들이 보이는 태도와 대처 행동을 관계적 변증법 이론을 통해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 자녀 세대가 경험한 갈등의 유형은 ‘암묵적 긴장’, ‘가식적 타협’, ‘적극적 대립’, 그리고 ‘노골적 충돌’로 나타났다. 이어 부모와의 갈등을 통해 자녀 세대가 경험한 모순으로는 ‘미움과 안타까움’, ‘해야 하는 헛수고’, 그리고 ‘무의미한 말다툼’ 등으로 요약되었으며, 모순에 대한 실천 유형으로는 ‘희망과 기대 버리기’, ‘이해하고 타협하기’, 그리고 부모라 하더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갈등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다뤄보기’ 등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녀 세대는 대체로 정치적 갈등을 가족과 크게 상관없는 일 등으로 축소하며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따라서 건설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2396)

** choics1@pusan.ac.kr

필요가 제기된다.

KEYWORDS 가족 갈등, 세대 갈등, 관계적 변증법, 가족 커뮤니케이션

1. 들어가며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갈등’이다. 근래 우리 사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 가운데 세대 간의 대립도 그 폭과 깊이가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 갈등이 정치적 사안과 더불어 연금개편 등 복지 문제를 비롯하여 고용과 주거 등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져가는 현상은 세대가 하나의 수단화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이현미, 2019; 조현연·김정석, 2016). 급기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직접 나서 대처 방안을 논의할 만큼 세대 갈등은 비중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홍기삼, 2019).

사실 세대 그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칼 만하임(Karl Mannheim, 1952)이 지적하듯, 세대는 계급(class)처럼 본질적으로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실체적 집단이 아니라 단지 ‘차이’를 내재한 무형의 개념일 뿐이다. 그러나 이 ‘차이’가 사회 내의 갈등적 이슈와 결합하면 문제의 본질이 오히려 세대 간의 대립으로 탈바꿈한다. 정치적 지지와 같은 추상적 사안에서 물질적 이해관계와 같은 구체적 이슈까지 세대와 결합할 수 있는 갈등의 원천은 실로 다양하며, 세대 간의 차이는 이러한 결합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이다(구자숙·한준·김명언, 1999; 김욱, 2013).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하는 곳은 사회와 같은 거시적 장(arena)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본적 집단으로 일컬어지는 ‘가족’에도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 또는 연령효과(aging effect)로 인한 구성원들의 가치관 차이가 존재하며(전용주·차재권·김은미, 2007), 이러한 차이는 이따금 가족 내외의 갈등적 사안과 결합하여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가족은 친구나 동료와 같이 주기적인 대면 관계를 맺는 집단인 ‘1차 집단’으로 구분되며, 전통과 질서 등 사회의 기초적 가치와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가 세대를 가로질러 전수되는 정치사회화의 핵심적인 기구로 기능해왔다(김도경, 2013). 주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던 이러한 가치와 신념의 공유체계는 그러나 대중매체와 개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확산과 함께 변화를 맞고 있다. 즉, 정보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가족의 가치와 태도 전수 역할이 축소되고 가족 울타리 밖의 존재들이 미디어를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김도경·박영애, 2011).

가족 구성원 간의 세대 갈등에 관한 연구들이 지목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서로 간의 이해 부족이다(안재화·유계숙, 2006).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증가는 세대 간의 전수를 통해 유지되던 가족의 공통된 가치관에 균열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의 행동이나 사고를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 '토대'의 침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예전부터 존재하던 세대 갈등이 고령화와 함께 더 표면화되었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활성화로 더욱 활발하게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김재한, 2006).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가치의 대립은 폭력이나 언쟁과 같은 적극적 갈등의 형태로 굳이 표출되지 않더라도 일종의 관계적 '긴장'으로 내재하기도 한다(Wilmot, 1987). 갈등과 긴장은 비록 그 양상은 다르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갈등과 긴장이 견잡을 수 없이 극단적으로 전개되며 가족이 와해되는 예도 더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대부분은 그러한 대립을 극복하거나 또는 묻어두며 관계를 유지한다.

이에 이 연구는 그러한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과 긴장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또 처리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같은 가족 외부의 사안으로 인한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을 자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정치적 이슈에 주목한 것은 세대 간의 대립이 정치적 갈등의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며, 또 이로 인한 갈등 양상이 구체적인 사회적 사안들로까지 확

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치나 사회적 이슈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이진희·이혜미, 2018). 즉,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주장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녀들이 그로 인해 어떤 갈등과 긴장을 겪고 또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가족 내에 어떠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고, 또 자녀 세대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가족 내의 세대 갈등 양상을 살피는 것은 정치·사회적 세대 갈등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가족을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때, 가족을 통해 사회적 세대 갈등의 본질을 보다 가까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대상이 내재하고 있는 갈등과 긴장의 유형을 살핌으로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관계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는 첫걸음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Wilmot, 1987). 이 연구는 어떠한 상황들이 갈등 또는 긴장으로 전개되고 또 어떻게 그러한 갈등과 긴장이 표출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족 내 세대 간의 문제 인식과 소통을 통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세대 간의 갈등은 당면한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는 세대 갈등에 대한 자녀 세대의 주관적 인식과 대처라는 다소 다른 접근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의 한 갈래를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 내 세대 갈등과 커뮤니케이션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경험

을 공유,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사람들이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박재홍, 2017), 사실 그 개념의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의 변동이 급격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에는 연령과 같은 생애 주기가 세대를 가늠하는 주요하면서도 간편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생애 주기와 함께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 생활 양식, 시간에 대한 감각, 사회 환경 등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세대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관점에도 마찬가지로였다(박경숙·서이중·김수중·류연미·이상직·이주영, 2013). 태어난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사회과정의 역사적 차원에서 공동의 위치를 차지하는 ‘출생 코호트’로 세대를 바라본 만하임(1952, p. 290)의 논의가 그 대표적 사례다.

세대를 구분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의미를 중요시한 만하임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커다란 변곡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집단적 특성을 대별하고 설명하여왔다. 흔히 거론되는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세대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를 구별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가족 내에서의 세대 문제를 살피는 것은 더욱 복잡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생애 주기와 그에 따른 혈육적 관계라는 전통적인 세대 개념과 사회적 코호트라는 개념이 중첩되어 있어서다(박경숙 외, 2013). 예를 들어 가족 내의 세대 갈등은 부모와 자녀라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의 차이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은 그들 고유의 생활 양식을 비롯하여 전통과 질서와 같은 사회의 기초적 가치,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점과 이해 등이 부모로부터 자녀로 전수되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라 할 수 있다(전용주 외, 2007).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사회적 신념도 마찬가지로 일상 속 행동과 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녀 세대에 전달되고 공유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가족은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단위로

도 평가되고 있다(김도경, 2013). 그러나 사회의 분화와 그로 인한 가족 형태 및 교육 방식의 변화, 소통 매체의 발전 등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러한 가치와 신념의 공유체계는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부모 세대가 맡아온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역할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적 정보 채널에 점차 대체되면서, 사회와 정치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전수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축소되고 미디어 등 외부적 영향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김도경·박영애, 2011).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의 가치와 태도의 공유 과정에서 미디어 등 외부 채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가장 주요한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해 왔던 가치관의 균열이다. 자녀 세대가 그들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를 외부 세계의 그것과 저울질한 뒤 외면한다면, 두 세대가 서로의 행동이나 생각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토대의 침식은 필연적이다. 토대의 이러한 침식과 균열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미디어 등을 통한 외부 세계와의 광범위하고 잦은 접촉이 이 과정을 더욱 가속한 것이 세대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로 인한 세대 간의 이해 부족은 세대 갈등을 낳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고(안재희·유계숙, 2006), 다시 소통 채널을 통해 외부로 더욱 활발하게 표출되고 있다(김재한, 2006).

이러한 가족 내 세대 간의 이해 부족은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반드시 폭력이나 언쟁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대신, 그러한 갈등은 '관계적인 긴장'의 형태로 가족 구성원 간에 내재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 구성원 간의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로 인한 갈등은 가치적 갈등(value conflic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과 같이 빈번하게 일상적인 대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가치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관계적 갈등(relationship conflict)으로 이어지게 된다(Shonk, 2020). 여러 유형의 갈등 가운데 이 관계적 갈등은 다른 이슈

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다른 유형의 갈등과 결합하여 더욱 더 강하게 갈등을 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가치적 갈등에서 비롯한 관계적 갈등은 거칠게 표면화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긴장의 상태로 구성원 간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이나 긴장의 전개와 관련,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가족 내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수집·분석하고 그것이 자녀의 의식이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탐구해 왔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작용하는 대화 지향적(conversation-oriented)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의 동질성에 중점을 두고 부모의 믿음이나 가치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순응 지향적(conformity-orientation) 등으로 구분하고(송원숙, 2021; Koerner & Fitzpatrick, 2002), 그에 따른 영향을 살피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구교태(2015)는 대화 지향적 소통을 하는 가족의 자녀 세대가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소통에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그리고 이용운과 하승태(2015)는 부모의 정치적 의사소통 방식과 표출하는 태도의 방향성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정치 인식과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분석(박영균, 2007)이나 세대별 의사소통 양식과 문화(박재현·이유미, 2013), 세대 간의 갈등관리 스타일(강길호, 2008)에 대한 분석 등도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가족 내 갈등과 긴장과 관련해서는, 윤숙자와 김희정(2013)의 연구가 눈에 띈다. 가족에게 닥친 위기나 도전 이후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인 ‘가족 탄력성’에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는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이나

긴장을 완화하고 극복하는데 적절한 양과 질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대 간 일방적이고 회박한 대화는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더욱 가속하지만, 생각을 공유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대화는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갈등과 긴장을 치유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이슈와 같은 외부적 이슈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내 갈등과 그 전개에서 자녀 세대가 경험한 소통의 과정, 그리고 이후 그러한 갈등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보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과 긴장을 보다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관계적 변증법 이론

앞서 간단히 논의한 대로 이 연구는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촉발된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과 긴장의 유형을 파악하고, 또 자녀 세대가 그러한 갈등과 긴장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그 전개 과정은 계량화된 자료로는 풍부하면서 섬세한 탐색이 쉽지 않은 주제다. 따라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는 데 적절한 접근 틀이 요구되며, 이에 이 연구는 관계적 변증법 이론(Relational dialectics theory; Baxter & Montgomery, 1996)에 주목하였다.

레슬리 백스터(Leslie A. Baxter)와 바바라 몽고메리(Barbara M. Montgomery)에 따르면, 이 이론이 전제하는 것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맺어지고 유지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Baxter & Montgomery, 1996). 다시 말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또 그것을 우호적 형태로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적 메시지를 교환하며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다시 정립하도록 하고, 또 때로는 단절과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스터와 몽고메리는 개인들이

각자의 관점과 욕망, 기호 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관계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push-me-pull-you)' 변증법적 긴장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Griffin, 2003, p. 158: chapter 11 참조).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상충하는 입장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그 차이와 다툼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 관계를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axter & Braithwaite, 2008). 즉 관계적 변증법 이론은 이러한 개인 간에 오가는 대화에 내재한 갈등과 긴장에 주목하며,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틀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 유형의 충돌과 갈등을 벡스터와 몽고메리(1996, p. 7)는 '모순(contradiction)'이라는 용어로 함축하면서, 특히 역할 갈등(role conflict)에서 이러한 변증법적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로서 해야 할 역할과 한 성인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충돌되는 상황이 그러한 예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모순의 대립 쌍을 몇몇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연결성(connection)과 자립성(autonomy)'은 상대방과 깊은 유대를 맺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스스로 독립된 자아이고자 하는 욕망이 병립하는 모순이다. 가족 내 관계에 이를 대입해 보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친밀한 애착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openness)과 폐쇄성(closed-ness)'은 자유롭게 타인과 정보를 나누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비밀로 해두고 싶기도 한 모순을 가리키는 것으로,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부모나 자녀가 정치적 의견 등 예민한 생각을 서로 캐지 않고 묻어두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 '확실성(certain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관계나 입장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명

확하게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 상황 이후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모호하게 유지함으로써 관계의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모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Baxter & Montgomery, 1996, pp. 8-17).

이러한 모순들은 당연히 그 자체로는 관계의 유지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모순이 적절하게 처리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유형을 달리하는 모순들이 중첩되면서 결국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Baxter & Montgomery, 1996). 즉, 다툼과 갈등의 횡수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되는 다양한 모순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법은 관계의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며, 모순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 그것을 실천(praxis)하는 것이다(Griffin, 2003). 즉, 나의 입장/생각과(正, thesis), 상충되는 입장/생각(反, antithesis)이 종합되어 실천(合, synthesis)으로 전화되면서 비로소 모순이 처리되고, 관계가 유지되거나 변화하는 것이다. 즉 부모 세대와의 의견 충돌로 갈등이나 긴장을 겪는 자녀가 충돌 이후 자신과 부모 세대에 대해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며, 또 그것의 해소를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하는지를 살핀다면 그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도 종종 등장하는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을 이러한 실천 유형에 비추어보면, 예를 들어 ‘정치적 토론과 소통을 거부’(이나미, 2017)하거나, ‘비속어까지 쓰며 분노를 쏟는’(강성규, 2019) 자녀 세대의 태도는 각각 ‘회피’와 ‘맞대응’ 실천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실천의 유형이 있을 것인데, 어떠한 실천들이 자녀 세대에 의해 사용되고 또 그러한 실천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 더 깊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가족 간의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의 차이로 인해 촉발된 갈등 또는 긴장을 자녀 세대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문제로 인한 가치적 갈등이 어떻게 관계적 갈등으로 내재하게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처리되는지를 통해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자녀 세대의 대처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관계적 변증법 이론(Baxter & Montgomery, 1996)을 토대로 삼아,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녀 세대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입장 또는 생각(정),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경험하는 모순(반),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모순적 상황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합), 그 유형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정치적 이슈로 인한 자녀와 부모 세대의 갈등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부모 세대와의 갈등에서 자녀 세대는 어떤 모순을 느끼는가?

연구 문제 3. 그러한 모순에 대처하는 자녀 세대의 실천 유형들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방법과 절차

1) 연구 방법

정치적 이슈로 인한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갈등과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질적 접근을 방법론으로 택했다. 질적 접근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 이슈 등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구성한 그들의 경험을 풍부한 진술을 통해 얻어내고 그것의 본질을 섬세하게 살피는 해석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Jackson, Drummond, & Camara, 2007; Jankowski & Wester, 1991/2004), 따라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자녀

세대가 경험한 부모 세대와의 갈등 경험과 그 본질을 보다 진하면서 세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진술을 통해 부모 세대와의 갈등 촉발과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이어 그로 인한 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이해를 문답을 통해 끌어내면서 각각의 사례에 내재한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갈등 경험의 중첩된 양상을 재구성하고 그에 관한 통찰을 얻는데 심층 인터뷰가 적합하였기 때문이다(Gläser & Laudel, 2009/2012; Lindlof & Talyor, 2011; Seidman, 2006/2009).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모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부모와의 의견 대립이나 갈등 경험이 참여를 위한 요건이었으며, 학내 공지를 통해 연구자에게 참여 의사를 밝힌 희망자 가운데 사전 문답 등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에게 요건에 부합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는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통해 추가로 연구 대상자를 섭외하여 총 15명이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심층 인터뷰 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22세에서 26세 사이였으며($m = 24.4$), 성별은 남성 여섯 명, 여성 아홉 명이었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 어문·상경 계열, 자연·공학 계열 각각 다섯 명씩이었다. 참여자들 가운데 12명(80%)은 정치적 이슈를 접하는 주요 매체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이라 답했으며, 두 명은 방송뉴스, 한 명은 신문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여덟 명은 진보 성향이라 밝혔으며, 세 명은 보수 성향, 그리고 네 명은 보수와 진보 어느 쪽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표 1〉 참조).

표 1. 심층 인터뷰 참가자들

약호	성별	연령	전공	정치성향		
				본인	부	모
A씨	여	22	사회 계열	진보	보수	보수
B씨	여	22	사회 계열	중도	보수	진보
C씨	남	26	사회 계열	보수	보수	진보
D씨	남	26	어문·상경 계열	진보	진보	중도
E씨	여	24	자연·공학 계열	진보	보수	보수
F씨	여	26	어문·상경 계열	진보	진보	보수
G씨	남	26	자연·공학 계열	보수	보수	중도
H씨	여	21	자연·공학 계열	진보	진보	진보
I씨	여	24	어문·상경 계열	진보	보수	보수
J씨	남	26	자연·공학 계열	진보	보수	진보
K씨	여	22	사회 계열	중도	진보	진보
L씨	여	26	자연·공학 계열	중도	중도	중도
M씨	남	26	사회 계열	중도	보수	중도
N씨	여	24	어문·상경 계열	진보	중도	중도
O씨	남	25	어문·상경 계열	보수	진보	보수

3) 심층 인터뷰의 진행과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는 학내에 별도로 마련한 인터뷰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참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요한 질문을 사전 전달하였으며, 인터뷰 당일 다시 한번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의 구성과 진행은 회고적 인터뷰 기법(Huston, Surra, Fitzgerald, & Cate, 1981)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기억할 만한 주요한 이슈 또는 갈등의 지점(turning point)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술의 범위나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17년의 대통령 탄핵, 그에 이은 대선,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일련의 주요한 정치적 이슈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어 그와 관련된 가족 간의 대화 상황 등으로부터 진술의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대

통령 선거, 북미/남북 정상회담, 지방 선거 등) 당시 기억나시나요?”, “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슈에 대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등 주요한 정치적 이슈와 그것에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방향적(directive)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여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상황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게끔 그때그때 적절하게 비방향적(non-directive)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진술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프로빙(probing) 질문을 던져 대상자들의 경험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한 가벼운 일상적 대화, 연구 개요나 안내 사항, 인터뷰 방법에 대한 설명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30~5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이후의 정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추가 설명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진술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의 진술은 사전 동의를 얻은 뒤 녹음되었으며 각각의 인터뷰 종료 후에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녹취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각 대상자의 진술을 먼저 갈등 상황에서의 자신의 생각, 갈등을 통해 경험한 모순,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나 실천 등으로 유목화한 뒤, 각각의 유목을 명명하는 개방형 코딩(Brinkman & Kvale, 2015)을 수행하였다. 이어 유목별로 각각의 진술을 다시 세밀하게 읽으며 그에 나타난 대상자들의 감정과 태도를 중심으로 다시 평가코딩(Cresswell, 2007; Saldaña, 2013)을 실시하여 정리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 방법론에 익숙한 연구자 한 명에게 연구의 개요와 방법, 익명 처리된 녹취록의 일부, 그리고 분석 결과와 함께 동료 검증(peer validation)을 의뢰하여 진술들에 대한 연구자의 유목화와 감정 및 태도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1)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갈등의 유형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갈등의 양상들을 열거한 뒤,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다.

(1) 암묵적 긴장

첫 번째는 정치적 이슈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 도중에 자녀 세대가 어떤 긴장감을 느끼고 대화를 중단하거나 이후에도 정치적 주제의 대화에 부담감을 느껴 침묵한 경험이었다. 비록 갈등이 드러나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녀 세대는 부모와의 의견 대립 상황에서 내재적 긴장감을 느끼고 그것을 갈등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뉴스 보면서 저녁 먹다가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표정을 보니까 내 이야기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찬성도 안 하는 그런 표정... 저랑 반대입장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뒤론 말이 끊어졌어요.” (A씨)

“아버지와는 정치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당장에 누가 시켜도 할 수는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안 하게 되네요. 아버지가 먼저 정치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으니 저도 먼저 하기가 쉽지 않네요. 딱히 서로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 그냥 회피, 다름을 알고 피하는 거 같아요. 뭐 다르다는 게 저한테 나쁘지는 않아요. 특별히 싫다거나 그런 감정도 없어요.” (O씨)

“정치 이야기를 그래도 가끔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결국은 약간 말이 안 통하는 걸 느끼고, 결국은 어쨌든 부모님도 저랑은 성향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같은 맥락인데,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활적인 문제, 사회문제 이런 거로 귀결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부모님이 되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딱 기성세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냥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됐다면서. (내가) 먼저 피하는 거 같아요.” (N씨)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정치적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상대방의 안색이나 어조 등 분위기를 통해 자신과 부모의 의견 대립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이전처럼 쉽게 정치 이슈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대립 상황에서의 침묵과 이후 관련 주제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녀 세대는 밖으로 불거지는 갈등으로 전화되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풀이된다.

(2) 가식적 타협

“(보통 대화의 끝은) 저의 가식적 수궁으로 끝나죠. 그냥, 뭐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가족이고, 오랜 본인의 생각이 잘 안 바뀌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앞에서는 네 맞습니다 하면 그냥 여기서는 그 이야기로 갈등이 빚어질 일은 없으니까. 예전에 강력하게 밀었을 때는 물러서기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D씨)

D씨의 사례에서 보듯, 대화의 종단을 택한 ‘암묵적 긴장’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부모의 주장을 긍정하는 시늉을 통해 갈등으로 번져갈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려 한 자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식적인 수궁과 타협을 통한 상황 회피가 자녀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

었다.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의 의도적인 긍정 반응을 경험하고 이를 진술하였다.

“조금만 말을 심하게, ○○○가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피하세요. ‘됐다, 됐다’ 하면서 돌리시다가, ‘근데 ○○○가 한 일 중에 이거는 괜찮았다, 엄마가 분명 이득을 본 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취준생의 입장이고 대학생의 입장이고, 20대인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엄마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보다 진짜 감정 다 빼고 사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만 감정이 실려버리면 엄마가 거기서 대화를 얼버무리세요. 딸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F씨)

본심과는 다르게 부모의 주장을 수긍하는 시늉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고 갈등을 빚지 않고자 하는 인터뷰 참가자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정치적 대화로 인한 갈등에 부담을 느끼고 가식적인 대답을 통해 대립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F씨는 자신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와 정치적 사안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고 싶으나 오히려 부모가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한 경험이 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러한 대처의 이유가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이 꺾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자녀와의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3) 적극적 대립

앞의 ‘암묵적 긴장’이나 ‘가식적 타협’이 침묵이나 거리 두기, 또는 거짓 대답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적 긴장 상황을 자녀 세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경험한 양상이라면,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본인의 생각을 당당히 드러내며 대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의도적인 회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냥 막 (정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버지가 끝까지 생각을 밀어붙이면, 뭐 거기에 대답을 안 하거나 그냥 피해버리죠. 그냥 그렇게 끝내죠.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나는 ○○○ 뽑을 거다 이랬는데, △△△ 뽑아라, 아 ○○○ 뽑을 거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니 욕을 하시더라고요, 나가라면서. 어머니도 야 그냥 △△△ 뽑는다 하고 ○○○ 뽑아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 알겠다 하고 ○○○ 뽑았죠. 그때 좀 트러블이 있었고, 심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고향을 쳤죠. 그냥 저는 거기다 또 대꾸하면 10프로 결과가 어떤지 뻔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고, 에이 됐다 하면서 나가 버리고.” (J씨)

“어느 순간부터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맨날 싸우는 걸 아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세요.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이제는, 제가 왜 이분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막 설명을 하면 아버지도 고집이 있으셔서 ‘알겠다, 알겠다’ 그냥 이런 식이고, 네가 극성이니까 내가 투표는 해줄 게 이런 느낌? 물어보면 ‘뽑았다, 뽑았다’ 이런 식이고, 어머니는 진짜 대화를 아예 피하시고.” (E씨)

적극적인 대립과 이에 이어지는 의도적 회피는 앞서의 ‘암묵적 긴장’이나 ‘가식적 타협’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부모 세대와의 긴장이 더 큰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적극적 대립은 자녀 세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부모 세대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갈등의

존재를 표면화하고 인정함으로써 상충된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관계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노골적 충돌

상당수의 참가자는 부모 세대와의 정치적 대화 도중 거칠게 표면화된 갈등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일부 참가자는 암묵적 긴장이나 의도적 회피를 통해 상황을 모면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대립이 다른 부분으로까지 번지면서 서로 간에 거친 대화가 오고 가는 갈등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예전에 그 ○○○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집에서 엄청 싸우고 가출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에 투표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의였는데. (아버지는) 내가 투표하는데 네가 뭘데 왈가왈부하냐, 이런 식으로 논쟁하다가 엄청 싸우고, 근데 그게 또 번져서, 인격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정치적 견해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너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셔서, 크게 싸우고.” (E씨)

E씨는 대통령 선거 뒤 가족들의 선택을 놓고 부모와 대화 도중 큰 논쟁과 충돌을 경험했으며,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갈등이 이렇게 거칠게 불거진 데에는 정치적 견해의 대립과 더불어 그러한 대립이 다른 문제로 전화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 대립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서로 해소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예를 들어 자녀)의 인격이나 태도 문제로 몰고 가는 경우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밖에 없다. E씨는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진짜 그때 옛날에 크게 싸웠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고, 정치적 견해가 잘 좁혀지지 않잖아요, 원래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있고 제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저의 뭔가 제 성격에 결부를 시켜서 혼을 내니까, 이걸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너는 타인의 말을 수용을 하지 않니, 이기적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되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번지더라고요.” (E씨)

“서로 감정적으로 똬서, 아니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화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딸이라고 네가 나보다 덜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그 뒤에 그냥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K씨)

인격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치 및 시사 등의 지식 문제로 몰아가는 것 또한 갈등을 더욱 번지게 하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겉으로 노골화된 갈등은 정치적인 의견 대립과 더불어 다른 요인들이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버지가 버럭한 적) 있죠,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그만해라! 하면서, 정치에 관한 이걸 때문에, 계속 말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끝났어요.” (B씨)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 다 끝난 일인데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잘못을 했고 그게 이제 밝혀진 거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당한 국가의 절차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

로 말하다가 언쟁이 높아져서 싸우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로,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따지고 막 아예 대화를 중단해 버리죠, 그냥.” (I씨)

위의 발언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거칠게 확대되는 요인들 가운데 다른 하나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임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부모 또는 어느 한쪽과 자녀 간의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감정적으로 번져 격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를 보면 국민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왜 잘못이 없냐 잘못이 있지,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길게 이어지면 싸움이 나요. 아버지 성질이 워낙... (중략) 저는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를 가진 데 대해서 약간 답답하고 짹 짹 막혔다는 생각에 몇 마디 건네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봤자 소용 없다면서요?) 그때마다 올라오는게 있으니, 뭐 결과는 매번 똑같죠.” (J씨)

또한 J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갈등이 겉으로 표면화되는 데에는 부모와 자녀의 성격적 태도가 또 하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완고하고 강한 성격을 가진 부모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녀 사이에서 대립하는 의견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갈등관리 스타일을 고집함으로써 표면화된 갈등이 더욱 악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약하면, 인터뷰를 통해 크게 네 가지 갈등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

었다. 그 첫 번째는 ‘암묵적 긴장’으로 의견의 대립을 인지하고 그로 인한 갈등을 회피하고자 침묵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식적 타협’으로, 부모 세대의 의견이나 주장을 거짓으로 수궁하여 대립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표면화되지 않은, 내재적 형태의 갈등 양상이라면 세 번째 유형 ‘적극적 대립’은 자녀 세대가 자신의 상반된 주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부모 세대와의 ‘다름’을 표면화하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발견한 네 번째 유형은 ‘노골적 충돌’로, 적극적 대립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인격 비하나 부적절한 평가, 몰이해 등이 상황을 격화시켜 고성(高聲) 등을 수반한 본격적 다툼으로 불거지는 것이다. 한편 E씨의 경우, 부모와의 적극적인 대립을 경험한 이후 의도적으로 정치적 대화를 회피하였으나 선거 이슈로 인해 다시 촉발된 대립 속에서 인격적 비하를 겪고 큰 다툼을 경험했는데, 이처럼 갈등 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양상도 발견되었다.

2) 자녀 세대가 갈등을 통해 느끼는 모순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부모 세대와의 갈등 과정 또는 그 이후 자녀 세대가 경험한 모순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자아를 가진 독립된 주체로서의 자신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나 상황 사이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괴리 또는 모순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미움과 안타까움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자녀는 부모와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갈등과 그 이후를 회고하며, 부모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비록 대립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그 대상이 부모인 까닭에 자녀로서의 입장이나 심리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 들을 때, 섭섭하지는 않고,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맹신, 맹신이라고 하죠, 그러한 걸 가지신 분 같아요. 그냥, 답답하다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섭섭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버지로서 존경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죠, 싫은 건 아니고. 정치 이야기 나올 때면 아 왜 저러실까, 왜 저러지. 이런 느낌.” (J씨)

J씨는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가진 편향적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간적인 관계와 정치적 견해의 상충 속에서 어느 것을 더욱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모순적 상황을 안타까움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의 갈등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안타까움에는 또한 몇몇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였다.

“정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명확한 정보가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 ○○○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고, 그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것만 보이고, (정치비리 사건에도) ○○○란 이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그런 분이세요.” (J씨)

“저도 막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뉴스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서 보면, 여러 매체를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롯이 ○○일보나 △△△에 나오는 정보로만 생각하시니까, 갑갑하죠. 갑갑하니까, 좀, 인정은 하되,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짙어진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되, 좀 열렸으면 좋겠다, 때로는 너무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할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D씨)

“(모 정치인율) 너무 싫어하시고, 밖에서는 이야기 안 하시는데 가족한테 그러세요. 저도 밖에서는 제발 그러시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그 ○○○ 너무 싫다고,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들으면 약간 음모론 같은 거 듣는 느낌이 들어서.” (G씨)

자녀 세대는 자신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균형잡힌 정치적 정보를 접하며, 부모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한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 몇몇 인터뷰 참여자는 부모들의 확증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미디어 및 정보 이용이 부모 세대가 기울어진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부모와의 갈등을 왜곡되거나 일방적인 정보로 인한 것으로 귀인시키고 있었다. 즉,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편향된 정보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정보에 휘둘리는 부모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다.

“음,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 이거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굳이 바로잡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주장이 강하신 편은 아닌데, 저희 아버지 쪽이 고집이 세요. 저도 세지만. 그래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도 끝까지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편이고, 끝끝내 맞다 하면 풀이 죽으세요. 그런 모습을 자식으로서는 굳이, 아버지 풀죽은 모습 봐서 뭐가 좋습니까? 차라리 그냥 이야기하시게 두는 거지.” (C씨)

또한, C씨는 옳지 않음에도 당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아버지를 굳이 이기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비록 자신의 의견이 더욱 정당하

지만, 가족이자 부모인 아버지를 꺾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타깝지만 그대로 당신의 의견을 고수하도록 둔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비록 자신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가족 내에서는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가족 외부의 사람들과 부모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경험했다고도 털어놓았다.

“한 번씩 불쌍해요, 가족들끼리는 크게 상관없는데, 특히 친척들 모였을 때, 거의 아빠한테 돌 던지듯이, ○○○ 뽑았으면서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그래 가지고, 아빠는 비밀투표라면서, 내가 누굴 뽑든 된 상관이나며, 막 그랬는데, 그때 좀 불쌍했어요.” (B씨)

B씨는 아버지와 정치적 대화 도중 버럭대는 아버지와 격한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지만, 아버지가 친척들과의 정치적 대화 도중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것을 목격하고 불쌍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족 내에서는 정치적 대화의 ‘적’이었지만 가족의 테두리 밖에서는 오히려 동정을 느끼면서 모순된 입장을 경험한 것이다.

(2) 해야 하는 헛수고

부모와의 갈등을 통해 인터뷰 참가자들이 느낀 모순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유형은 ‘해야 하는 헛수고’였다. 부모의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쉽사리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정치적 관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모순인 것이다.

“저는 사실 주로 듣기만 해요. 저는 차라리 제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아버지 의견에 그냥 맞장구쳐주고. (중략) 사실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가족들과 굳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대화가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나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거나 주로 아버지 쪽이 더 많지만,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굳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차라리 아 그렇구나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사실 내가 편하죠.” (C씨)

“막 싸우고 그러진 않죠.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게 좀 아쉬운 점은 뭔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약이나 이런 일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어느 쪽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가는지를 보면 아무래도 보수 쪽은 기득권층이니까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저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회피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이 그렇다면, 솔직히 오십 년을 넘게 사셨고, 쌓아오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F씨)

“마무리는 감정적, 이게 정리는 안 되고요,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감정적인 싸움으로 중단이 되요. 그냥, 어 그래 알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아, 다시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던데요. 정치 이야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싫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짜증나요. 짜증나고,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태도를 안 바꾸시니까, 자꾸 고집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게 짜증난다 그런 느낌

이예요.” (I씨)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정치적 견해가 부모의 그것보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려 노력하지만 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한편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러한 진술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은 무조건 고수되어야 하며, 반대로 부모의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모순적 태도도 엿볼 수 있었는데, 부모 세대가 경험해 온 정치적 환경, 세대 차이, 또는 고집스러운 성격 탓으로 문제를 환원하며 그러한 모순적 태도를 상쇄하려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었다.

(3) 무의미한 말다툼

한 인터뷰 참가자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경험한 뒤,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갈등 상황을 쉽게 수긍하거나 회피하는 자신의 처신을 “이런 게 가족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닐까요?”(M씨)라고 반문했다. 한편으로는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가질 권리를 뜻하는 말로 이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부모 세대에 대한 무관심을 합리화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인용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냥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랑 저희 집 사정이랑 그렇게 막, 솔직히 우리 집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막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정치랑 저희 집 사정이랑 약간 별개?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 생활에 있어서 정치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달라도, 안 달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H씨)

“정치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와, 부모님과
 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해봤자 달라
 지는 게 없는데, 소모적이라서, 그냥 저는 엄마의 이제 생각이 어떤지
 잘 아니까, 아 그냥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미 저는 잘
 아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의, 이긴 근데 계기라는 건 딱히
 없는데, 제가 원래는 한창 그런 게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탄핵이 되고,
 그 당시에는 엄청 분노가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서서히
 지나면서, 앞으로 그런 이슈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것도 일단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생각이 들더라
 고요. 이제는 서로 정치적인, 제가, 엄마의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지지
 정당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씨)

또한,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정치적 입장 차이의 원인과 배경 등
 갈등의 본질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 그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환원하
 여 가족 간 갈등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K
 씨는 “실제로 별 영양가도 없는 이야기 가지고 가족 간에 감정 상하고 싶
 지 않아요.”라고 털어놓았다. 즉, 정치적 논쟁에서 촉발된 노골적인 갈등
 을 경험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별 의미가 없는 다툼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과정 자
 체가 결과적으로는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버리는 것이다.

“아무래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분 상황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빠랑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에 대해서 이야
 기를 했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되게 의견이 반대로 부딪혀서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사드, 사드에 대해서 아빠랑 생각이 너무
 반대돼서 한 번 싸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전에 이야기를 자주 한 건
 아닌데, 그런 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굳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해서 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가까이 일어나는 가족 일이나 제 진로 문제나 그런 거면 우리가 직접 어떻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지역에 사드 문제 가지고 아빠하고 싸운다고 뭐 달라지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 국제정세에 아빠랑 제 의견이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로 감정 상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K씨)

그러나 일부 인터뷰 참가자들은 정치적 견해로 인한 갈등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치부하면서도, 만약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와 정치적 견해차로 갈등을 빚게 된다면 그것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본인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본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도 전해 온다면 어떨까요?) “되게 일단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고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식한테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한테 짜증이 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들어는 주겠죠. 길고 짧은 건 대박야 아니까.” (I씨)

3) 모순의 극복: 갈등 이후의 실천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순은 필연적으로 내재적·외재적 불편함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에 사람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해소하려 노력하게 마련이며(Baxter & Montgomery, 1996), 이는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경험하는 모순에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크게 세 가지의 모순에 대한 참가자들의 실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연구 문제 3).

(1) 희망과 기대 버리기

첫 번째 실천의 유형은 부모와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나 설득에 대한 희망과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그들과 다를 수 있음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털어놓았다. C씨는 이러한 상황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표현했는데,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변화시키고자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모든 시도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러한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고 있었다.

“명확해요, 답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겠지만, 확실한 건, 그런 걸 이야기를 해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어차피 독에는 물이 안 찰 건데, 그러면 드는 팔만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 저 독은 깨졌구나,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좀 부적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C씨)

“아니요. 저는,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점,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싸우는 그런 몇 번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막 소리를 높이고까지 가다가, 최근, 점점 최근, 가장 최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냥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다면, 그것을 옛날처럼 싸우거나, 뭐 엄마한테 짜증을 내거나,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는 걸 알았다고 해야 할까? 의미 없다 이런 느낌.” (I씨)

이전에 경험했던 다툼이나 갈등 때문에 더는 부모의 동의나 이해를 바라지 않게 된 자녀 세대는 정치적 견해를 나누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이는 점차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의 양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제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빠가 목소리가 좀 크시고, 저도 막 분노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머니나 큰오빠나 작은오빠나, 작은오빠는 아예 말을 안 하구요, 큰오빠나 엄마는 그냥 듣고 있다가 아이 그래 알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죠.” (F씨)

(2) 이해하고 타협하기

갈등 이후 다른 실천의 유형은 부모의 정치적 견해차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와 타협의 실천 배경에는 부모와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집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갈등의 과정에서 부모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한 고려, 그리고 가족의 분위기를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에, 예전에는 무조건 진보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어릴 때니까 그래서 아빠는 왜 저럴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역시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가 아빠가 가진 사상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빠가 살아온 세대 자체가 그런 보수적인 성향, 사고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제 꿈과 미래 비전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면 당연히 싸우겠지만, 아빠의 그런 개인적인 견해 가지고 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B씨)

“굳이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분위기 싸해지는 게 예상되고,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낳으셔서 이제 60대시 거든요, 그런 거로 서로 맘 상하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빼기고, 이런 거를 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힘드신 때니까, 굳이 자식이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 가면서 부모님 기를 죽이고 이런 게, 싸우지 않고 부모님 기를 좀 살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거죠. (중략) 바로잡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대학 생활 초반에는 그랬는데, 오히려 그냥, 그걸 굳이, 저희 어머니는 주로 지적을 하시는 편인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도, 뭐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안 하려고 하죠.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의 사고체계라고나 할까, 그런 거를 이해까지는 힘들지만, 아 저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구나,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네, 이런 식이죠.” (C씨)

“저는 제 나름대로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저도 나름으로 이걸 이래야 된다는 그런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존경을 하지는, 존경을 안 한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서로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존경이라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G씨)

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들은 부모의 생각이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갈등 이후에도 부모와 정치적 이슈에 대해 간헐적으로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맞장구를 쳐주며 부모의 견해나 주장을 받아주는 것에 적응된 것 같다고 말했다(아래 L씨). 또한,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는 미리 부모의 생각을 떠보고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상황에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다(아래 K씨).

“다른 의견이 나오면 엄마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지, 하면서 그 부분보다 더 넘어서 이런저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뭐라 이야기하시면,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엄마 말이 맞다고 하고.” (L씨)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살짝 떠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반박하면 기분 나쁘고 뽀뽀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짝 엿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저랑 같은 의견을 가졌을 때만 이야기를 해요.” (K씨)

(3) 끝까지 다뤄보기

또 하나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발견된 실천의 유형은 갈등 이후에도 정서적 이슈로 인한 부모와의 다툼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천을 하는 참여자들은 예전과 같은 큰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회피나 타협이 아닌,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데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 정권 때는 북한에 안 퍼졌는데, △△△ 정권 때 더 많이 퍼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카톡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이게 아니구요, 통계자료 막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엄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아 그래 네 말이 맞네,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고쳐, 고친다기보다는,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바꿀 수는 있으니까, 싸우지 않는 선

에서 계속 권હે드릴 생각은 있어요.” (F씨)

“부모님한테 어필을 하고 싶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부모님도 살아
가겠지만, 제가 더 살아가야 할 사회인데, 그런 쪽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인식을 바꾸고 싶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N씨)

자녀와의 다툼을 경험한 부모 세대 또한 그들 나름의 실천 방식을 가지
고 있었다. G씨는 아버지가 자신과의 다툼 이후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자녀를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지금도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넌 그런 생각을 가
지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로, 그런 주
제를 꺼낼 때, 약간 망설여보거나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대쪽도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하시는 스타일.” (G씨)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가족 내 갈등과
긴장, 그리고 그로 인한 모순의 유형과 실천의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세대가 경험한 갈등의 양상(연구 문제 1)
을 파악하고, 이어 그러한 갈등이 유발한 내적 모순(연구 문제 2), 그리
고 자녀들이 그러한 내적 모순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실천해 나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연구 문제 3), 그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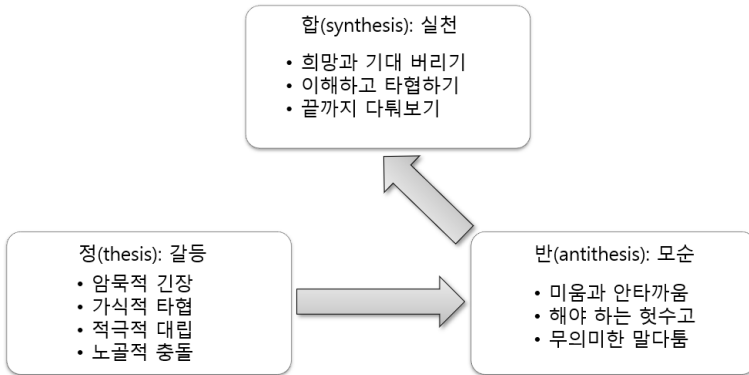


그림 1. 관계적 변증법으로 본 자녀 세대의 갈등과 모순, 그리고 실천

먼저 정치적 이슈로 인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경험한 갈등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는 ‘암묵적 긴장’으로 갈등이 언쟁 등의 형태로 드러나게 불거지지 않지만, 서로의 입장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다. 인터뷰 참가자 가운데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던 도중 아버지의 표정을 통해 자신과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고, 대화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N씨 또한 정치적 대화 도중 자신과 다른 ‘세대의 벽’을 느끼고 말을 아낀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암묵적 긴장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거나 철회하지 않으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대립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번째 갈등의 유형은 ‘가식적 타협’이다. 앞의 ‘암묵적 긴장’이 상황은 중단되었지만, 긴장은 내재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유형은 의도된 거짓 동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더 큰 갈등으로의 전화를 막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식적 타협을 경험한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전에 암묵적 긴장의 상황도 겪어보았다고 토로하였는데, 이로써 암묵적 긴장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식적 타협이 선택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D씨는 갈등과

긴장이 주는 불편함이 싫어 이제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식적인 타협은 언뜻 갈등의 해소로도 인식될 수 있는데, 최소한 한쪽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한 양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묵적 긴장’과 ‘가식적 타협’은 갈등이 그나마 내재적 긴장의 형태로 발생·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갈등 유형은 겉으로 불거지며 갈등의 존재를 쌍방이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차이가 있다. 먼저 ‘적극적 대립’은 자녀 세대가 본인의 생각을 부모 앞에서 굽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유형이다. 서로의 의견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한쪽이 쉬이 수긍하거나 논쟁의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기는 정치적 이슈의 성격상 쉽지 않다. 따라서 적극적 대립 양상은 갈등을 잠정적으로 종료하고 재발을 지연시키는 ‘의도적 회피’의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네 번째 유형인 ‘노골적 충돌’은 언쟁이나 폭언 등의 형태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대립이 거칠게 표면화된 것이다. E씨는 투표를 놓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 격한 언쟁을 겪고 결국은 집을 나가버린 경험을 전했다. B씨 또한 부모와 논쟁과 말싸움 끝에 결론을 맺지 못하고 대화 자리를 박차버리고 떠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밝힌 이러한 거친 대립의 양상들에서 연구자는 일종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언쟁이나 다툼이 거칠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가 자녀의 인격이나 태도, 정치 지식의 부족을 지적하는 바람에 언쟁이 감정적으로 번지기도 하고(E씨, K씨), 자녀 세대가 세대 차이나 부모의 성격을 이유로 자신의 반응을 정당화하면서(I씨, J씨) 다툼을 키우는 것이다. 한편, 인터뷰 참가자들이 토로한 이러한 거친 대립의 양상 이면에 숨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폭발이 평소에 내재되어 있던 관계적 긴장과 결합되어 정치적 대화 도중 터졌다는 것이다. 즉, 평소 있어왔던 부모와 자녀 간의 긴장이 대립성이 강한 정치적 이슈라는 약한 고

리를 통해 점화된 것이다.

이들 네 갈등 유형을 라힘(Rahim, 1983)이 제시한 바 있는 갈등 관리의 유형에 대입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제시된 ‘암묵적 긴장’은 자녀들의 ‘타협(compromising)’적 갈등 관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관여와 타인에 대한 관여가 비슷한 정도로, 이기거나 지는 극단적 결과보다는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여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외부 또는 상대방부터 자극이 반복되거나 더 강한 자극, 즉 정치적 대화가 간헐적으로라도 이루어지거나 이견의 강도가 더 커진다면 이러한 타협의 상태는 유지되기가 힘들며 다른 형태의 갈등관리 전략 선택이 요구된다(Weider-Hatfield & Hatfield, 1995). 세 번째 ‘적극적 대립’ 그리고 네 번째 ‘노골적 충돌’을 경험한 인터뷰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암묵적 긴장’을 경험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가식적 타협’은 다섯 가지 갈등관리 전략 가운데 ‘회피(avoiding)’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Rahim, 1983). 회피는 자신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여도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즉 갈등을 통해 내가 얻을 이익이 없거나 작으며 상대의 이익이나 손해에도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대립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지속할 경우 손해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갈등을 통해 부모 또한 얻거나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 갈등을 사전에 피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회피는 언뜻 보면 표면화될 수도 있는 갈등을 잠재우는 하나의 적절한 방편으로 보이지만,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겨두어 더 큰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Beeve & Mottet, 2013). 더구나 서로에 대한 관여를 줄여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면서 관계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Borisoff & Victor, 1989).

그리고 ‘적극적 대립’과 ‘노골적 충돌’은 ‘경쟁(Competitive)’ 또는

‘지배(dominating)’적 갈등관리 전략이라 할 수 있다(Kilmann & Thomas, 1977; Rahim, 1983). 이 전략은 자신에 대한 관여는 높지만 상대에 대한 관여는 낮은 경우에 선택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상대를 이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이와 같은 경쟁 또는 지배를 해소 전략으로 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이전에 택했던 갈등관리 전략에 더는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암묵적 긴장이나 가식적 타협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앞서 말했듯 이러한 전략은 갈등의 표면화를 억누를 뿐,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관계적 긴장만 부추겨 그것이 표면화되었을 때의 폭발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Borisoff & Victor, 1989). 두 번째로 추정되는 원인은 촉매의 작용이다. 상반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이나 관점이 부모에 의해 성격적 문제나 지식적 한계로 귀인되는 경우, 성인 자녀는 그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기존에 택했던 긴장의 유지나 의도적 타협 전략을 반복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Clarke, Preston, Raksin, & Bengston, 1999).

그러나 적극적 대립과 노골적 충돌의 양상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갈등을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봉합하고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립하는 주장들 서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로 인한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관계적 긴장을 완화하는 첫 단추다(Wilmot, 1987). 침묵과 거짓 타협으로 관계 속에 내재한 긴장을 끊게 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내고 소통을 통해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더욱 건강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족 탄력성의 관점에서도 그러할 것이다(윤숙자·김희정, 2013).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갈등의 상황과 그 이후 자녀 세대가 느끼는 모순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순은 넓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의 다양한 양상들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욕구 혹은 기대가 병립하면서 어느 쪽이 더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 갈등과 긴장을 아울러 가리킨다(Bexter & Montgomery, 1996). 이 연구의 인터뷰 참가자들이 경험한 모순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순의 유형은 ‘미움과 안타까움’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부모 세대가 편향적이고 그릇된 정보에 근거해 정치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강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는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균형잡힌 주장을 가진) 자녀로서 그들의 타당하지 않은 정치적 견해를 바로잡아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이 그러한 안타까움의 배경이었다. 오랫동안 길러주고 보살펴 준 부모 세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윗세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고자 하지만, 정치 현상에 대한 그들의 구태적 인식은 바로 잡고 싶다는 기대가 얽히면서 내면적 모순을 형성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부모와 자녀라는 전통적 세대 관계와 군사독재를 경험한 세대와 민주화 이후 세대 간의 코호트적 대립이 중첩된 양상으로, ‘자립성과 연결성’ 사이의 긴장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Bexter & Montgomery, 1996). 즉, 이전 세대와는 다른 ‘나름대로 성숙한’ 정치적 자아를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립적 욕구와 부모 세대와 맺어 온 돈독한 유대관계와 가족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상충하는 상황인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해야 하는 헛수고’로, 쉽게 말해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부모가 가진 생각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내면적 모순을 의미한다. 인터뷰 참여자 I씨는 정치적 대화 도중 매번 감정적인 다툼을 경험하고 다시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 F씨 또한 어머

나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좀 더 넓은 식견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간의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현재처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면적 모순을 벅스터와 몽고메리(1996)가 제시한 유형에 대입하면, 개방성과 폐쇄성의 모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 싶지만(개방성),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도가 더 큰 문제나 갈등, 혹은 관계의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폐쇄성). 즉, 자녀로서 부모의 닫힌 마음을 열어젖히고 싶은 욕구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무의미한 다툼'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생각의 다양성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면서, 정치가 삶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모순이다. 이는 단순하게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간의 모순이라 유형화 할 수 있는데(Bexter & Montgomery, 1996),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당시에는 자녀 스스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장했지만, 막상 갈등 이후에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면서 부모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자신과 부모의 생각이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욕구와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과장을 생각해 부모의 입장이나 주장에 대한 관심은 '회색 영역'에 묻어두고자 하는 욕구가 병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차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K씨는, 정치 이야기는 실제로 별 영양가도 없고, 가족 간에 감정을 상하게만 할 뿐이라며 정치적 대화의 가치를 절하했다. 격한 대립을 빚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치 이야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별것 아닌 이야기로 평가하는 모순인 것이다.

갈등 이후에 경험하는 모순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며, 관계적

변증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모순은 발전이나 변화의 원동력(drives)이 되기도 한다(Baxter & Montgomery, 1996, p. 7). 즉 내면적 갈등과 모순은 다시 그러한 상충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변증법적 노력이나 시도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한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Baxter & Braithwaite, 2008). 이 연구가 주목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감안하면 그것이 단절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모순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 연구 문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이후 자녀 세대가 그들이 경험한 내적 모순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실천해 나가는가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로부터는 크게 세 가지의 실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더 이상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설득이나 대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 C씨는 이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하며, 그간 자신이 대화를 통해 부모의 정치적 입장을 변화시키려 해 왔던 노력들이 아무 의미도 없었으며, 본인만 상처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J씨는 괜한 정치 이야기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가급적이면 대화를 자제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미움과 안타까움이라는 모순을 경험했었는데, 이러한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내적 모순을 합리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소통 거부는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데(예: 이나미, 2017), 부모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까닭에 이러한 실천이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실천의 유형으로 발견된 것은 ‘이해하고 타협하기’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부모이니만큼 자녀의 입장에서 그러한 ‘차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다.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세대 차이나 출신지, 살아온 경험 때문에 부모들이 다른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들은 부모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거나 맞장구쳐주며 부모 세대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해와 타협에는 부모가 가진 정치적 입장을 자녀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태도와, 또한 성인 자녀로서 부모와의 정치적 이슈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생각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실천의 유형은 부모가 잘못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도록 계속 노력하는 ‘끝까지 다뤄보기’다.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부모와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갈등 이후에도 부모를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갈등을 피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F씨는 어머니와의 정치적 대화를 떠올리며 아무리 틀린 사실을 바로잡아드려도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에 막막함을 느꼈다며, 예전과 같은 다툼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씨는 계속해서 부모와의 정치적 대화를 이어나가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으려 하는 이유로, 본인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인 만큼 부모에게도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천 유형에 해당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로 ‘미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해야 하는 헛수고’와 같은 모순을 겪었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부모와의 정치적 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게 한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유형, 자녀 세대가 그 과정을 통해 경험한 모순, 그리고 그러한 모순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가를 관계적 변증법 이론(Baxter & Montgomery, 1996; Baxter & Braithwaite, 2008)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은 크게 암묵적 긴장과 가식적

타협과 같은 소극적 양상, 그리고 적극적 대립이나 노골적 충돌과 같은 직접적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자녀 세대는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무력함, 그리고 의미 없는 말다툼이라는 모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거나,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거나, 또는 갈등을 불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들이 경험한 모순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과 그 대처 과정은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내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갈등을 다툼 등의 형태로 표면화시키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대화를 단절케 하는 등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앞서 모순의 긍정적인 측면(Bexter & Montgomery, 1996)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갈등 또한 이를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자녀와 부모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같은 가족 외부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잦다. 외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도 이러한 갈등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적 긴장(Wilmot, 1987)으로 내재되며, 관계적 긴장은 다시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이후 다른 이슈로 인한 갈등으로 쉽게 번져 나간다(Shonk, 2020).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족 내의 해묵은 갈등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트린다는 것이다(Clarke et al., 1999).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갈등과 모순에 대한 실천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야 할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실천의 유형으로 제시한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관련한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실천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대화 부족이나 단절을 유발할뿐더러 그로 인해 관계적 긴장을 더 깊게 한다(Borisoff & Victor, 1989).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가족 내 갈등과 그 전개 양상을 조망한 이 연구는 나름의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지만, 한계도 없지 않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과 모순, 그리고 실천의 양상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포화(saturation)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더 많은 인터뷰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양상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인터뷰의 대상을 좀 더 다양한 연령, 직업으로 넓혔더라면 갈등의 양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갈등의 유형과 모순, 그리고 실천을 바탕으로 가족 내 갈등과 실천,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면 가족 내 소통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길호 (2008). 세대 간 갈등관리스타일의 지각에 대한 차이: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인가 혹은 세대 간 영향력의 차이인가.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통권 9호, 68-100.
- 강성규 (2019. 2. 4). '신미디어 시대'...설연휴 달라진 '밥상머리' 가족토론 풍경.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print/201902041501458647>
- 구교태 (2015).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5권 2호, 197-218.
- 구지숙·한준·김명연 (1999). 세대 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8권 1호, 123-139.
- 김도경 (2013). 가족 내에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386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3집 2호, 75-97.
- 김도경·박영애 (2011). 가족 내에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법정리뷰>, 28집 2호, 37-57.
- 김욱 (2013). 한국 정치사회의 갈등 구조 변화와 세대 갈등. <사회과학연구>, 35집, 102-120.
- 김재한 (2006). 정치적 세대갈등의 오해와 이해. <의정연구>, 12권 2호, 135-155.
- 박경숙·서이중·김수중·류연미·이상직·이주영 (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가족·경제·문화·정치적 메커니즘>. 서울: 다산출판사.
- 박영균 (2007).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44.
- 박재현·이유미 (2013). 수사적 민감성 척도를 활용한 세대별 의사소통 양상 분석. <화법연구>, 22권, 329-354.
- 박재홍 (2017). <세대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 송원숙 (2021). 한국형 가족 커뮤니케이션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이

-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8권 4호, 173-213.
- 안재희·유계숙 (2006).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의견에 대한 부모의 지각. <가족과 문화>, 18집 1호, 117-141.
- 윤숙자·김희정 (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와 가족탄력성의 관계. <디지털정책연구>, 11권 8호, 23-30.
- 이나미 (2017. 2. 23). 세대간 갈등, 어떻게 풀까.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231049261743>
- 이용운·하승태 (2015).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정치적 의사소통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언론학연구>, 19권 1호, 221-247.
- 이진희·이혜미 (2018. 6. 8). 분단·전쟁 겪은 한국, 세대간 정치의식 '극과 극'.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011501086375>
- 이현미 (2019. 1. 2). “세대 간 도적질?”…갈등 부추기는 정치·정책.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01002514>
- 전용주·차재권·김은미 (2007). 정치사회화와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권 2호, 97-132.
- 조현연·김정석 (2016). 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과 세대갈등: 공무원 연금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110호, 270-299.
- 홍기삼 (2019. 2. 2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내일 '젠더·세대 갈등' 토론회. <뉴스1>. URL: <http://news1.kr/articles/?3553767>
- Baxter, L. A., & Braithwaite, D. O. (2008). Relational dialectics theory: Crafting meaning from competing discourse. In L. A. Baxter & D. O. Braithwaite (Eds.), *Engaging theori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ultiple perspectives* (pp. 349-361). Thousand Oaks, CA: Sage.

- Baxter, L. A., & Montgomery, B. (1996). *Relating: Dialogues and dialectic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eebe, S. A., & Mottet, T. P. (2013). *Business and professional communication: Principles and skills for leadership* (2nd ed.). Boston, MA: Pearson.
- Borisoff, D., & Victor, D. A. (1989). *Conflict management: A communication skills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inkman, S., & Kvale, S. (2015).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larke, E. J., Preston, M., Raksin, J., & Bengtson, V. L. (1999). Types of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The Gerontologist*, 39, 261-270.
- Cres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Gläser, J., & Laudel, G. (2009). *Experteninterviews and qualitative inhaltsanalyse* (3rd ed.). 이상수·정수정 (공역) (2012).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Griffin, E. (2003).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5th ed.). Boston, MA: McGraw Hill.
- Huston, T. L., Surra, C. A., Fitzgerald, N. M., & Cate, R. M. (1981). From courtship to marriage: Mate selection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Duck & R. Gilmour (Eds.), *Personal relationships 2: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hips* (pp. 53-88). New York, NY: Academic Press.
- Jackson, R. L., III., Drummond, D. K., & Camara, S. (2007). What is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8, 21-28.
- Jankowski, N. W., & Wester, F. (1991). The qualitative tradition

- in social science inquiry: Contributions to mass communication research. In K. B. Jensen & N. W. Jankowsky (Eds.),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김승현·김신동·김영찬·김예란·윤태진·이상길·전규찬 (공역) (2004). <미디어 연구의 질적 방법론> (66-103쪽). 서울: 일신사.
- Kilmann, R. H., & Thomas, K. W. (1977). Developing a forced-choice measure of conflict-handling behavior: The "MODE" instrument. *Educational & Psychological Measurement*, 37, 309-325.
- Koerner, A. F., & Fitzpatrick, M. A. (2002). Understanding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family functioning: The roles of conversation orientation and conformity orientation. In W. B. Gudykunst (Ed.), *Communication yearbook 26* (pp. 36-68). New York, NY: Routledge.
- Lindlof, T. R., & Talyor, B. C. (2011). *Qualitative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Mannheim, K. (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Saldaña, J. (2013).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 (3rd ed.). 박혜준·이승연 (공역)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서울: 학지사.
- Shonk, K. (2020, October 1). 3 types of conflict and how to address them: Different types of conflict - including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and value conflict - can benefit from

different approaches to conflict resolution.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Daily Blog. Retrieved from: <https://www.pon.harvard.edu/daily/conflict-resolution/types-conflict/>

Weider-Hatfield, D., & Hatfield, J. D. (1995). Relationships among conflict management styles, levels of conflict, and reaction to work.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687-698.

Wilmot, W. W. (1987). *Dyadic communication* (3rd ed.). New York, NY: Random House.

투 고 일 자: 2022년 01월 05일

심 사 일 자: 2022년 02월 02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02월 21일

Abstract

Coping praxis of adult-children toward generational conflict with their parents due to political disagreement

Chang shik Choi

Lecturer, Office for Education Accredi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has been emerging as a major social problem across various social areas, including the family. While differences in values and beliefs due to changes in the traditional roles of family memb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communication channels such as the media are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s of conflicts in the fami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dult child generation perceives and copes with generational conflict within the family.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categorizes the perceptions and coping behaviors of adult children in confrontational situations with their parents and the types of conflicts that political issues cause within the family through the relational dialectical theory(RDT).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college students show that the types of conflict experienced by the adult-children generation were 'tacit tension', 'false acceptance', 'bold confrontation' and 'rough conflict'. Then, the contradictions experienced by the adult-children generation through conflicts with their parents were summarized as 'pity', 'making vain efforts', and 'meaningless conflict'. Lastly, 'abandoning hope', 'understanding and compromise', and 'keeping argue' were found as the praxis of the adult-children generation. In sum, the adult-children generation generally showed a tendency to avoid explicit confrontation by reducing conflicts to matters that

are not worth enough to go through in return for peace within their family. However, such a passive attitude is highly likely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thu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families constructively.

KEYWORDS family conflict, generational conflict, relational dialectics, family communication